

선보가족

“제12회 부산 마라톤대회” 참가

뛰고 달리고 부딪치면서
동료에도 느끼고 단합심도 한층 더!!

선보공업(주) 2-2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던 지난 14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부산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50여 명의 선보패밀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제신문에서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풀코스, 하프마라톤 그리고 10km로 구성됐으면 2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우리회사 임직원은 평소 소홀하기 쉬운 건강관리를 위해 10Km코스에 참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번 코스는 다대포해수욕장을 출발하여 강변도로 중간지

점에서 반환하여 다시 다대포해수욕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참여한 사원들 전원이 10km 코스 완주에 성공해 건강을 뽐냈다. 이번 대회는 특히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늘어나 가족 어울림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다.

이번 대회를 기획한 남복춘 차장은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마라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서원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했다는

품질보증부의 최경호 차장은 “5년 동안 뛰지 않다가 부서원들과 함께 뛰기 위해 오게 됐는데, 다함께 뛰니 기분도 좋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어울림의 장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한편 4년째 가족이 다함께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는 설계부 박문영 부장의 가족은 기록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건강 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즐거움을 두었다. “가족끼리 주말에 함께 무언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좋다.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같이

달리다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도 더 돈독해지고 서로 속도를 맞추어 뛰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그 소감을 말하면서도 “하지만 매년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것과 뒤풀이 장이 없어 마라톤만 뛰고 다들 흩어져버리는 것이 아쉽다”며 내년에는 좀더 개선된 모습의 대회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설계인증서 획득

우리 회사의 신제품 개발팀은 최근 구매조건부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설계 인증서를 취득하였다.

신제품 개발팀은 지금까지 산업재산권 특허 8건 취득과 설계승인 2건 형식승인 1건을 취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신성장동력이 되는 개발을 하자는 목표와 함께 실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부서원들의 강한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건의 국책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더 많은 사업을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일보사 김종렬 대표이사 및 임원단 당사 방문

지난 11월9일 부산일보 김종렬 대표이사를 포함한 부산일보 임원단은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부산일보는 부산의 기업이 살아야 부산의 경제가 산다는 생각 아래 부산 대표기업 탐방행사를 하고 있다. 이에 조선기자재 유망기업인 우리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김종렬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하여 정부나 지방단체로부터 지원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기대하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부산일보가 되겠다는 뜻도 남기었다.

이어 김 대표는 선보공업 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부산의 대표적

가족친화기업인 선보공업 임직원들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 어울려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직원들과 늘 가까이 하려는 좋은 경영자를 모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직원입니다.”라는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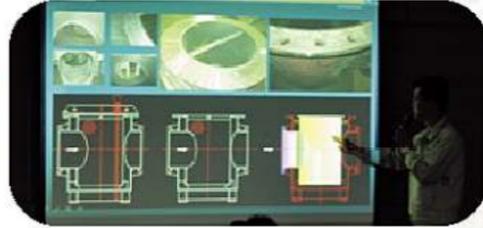
이번 방문으로 부산일보사와 우리 회사가 상호 협력하여 부산 경제 살리기에 함께 앞장서기를 기대해 본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JIS TYPE STR FILTER & NOZZLE 개선

다대3공장 신성인 과장



우리 회사는 사내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성과 확산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장명우 상임고문 및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생산성향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스트레이너 JIS 필터 및 노즐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다대 3공장 신성인 과장을 만나보았다.

Q 어떻게 STRAINER 개선 방안을 고안하게 되었나?

A 필터를 만드는 공정에서만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 생겨 현장에서 많이 불편했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Q 개선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A 기존 업무 외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개선 과정 중 장명우 상임고문님의 많은 자문과 도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Q 대상 수상 소감은?

A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뜻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실망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었다. 집에서 종이컵으로 이리저리 오리고 붙이며 정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와 줘서 뿌듯하고 기쁘고, 그간 노력들이 모두 이 성공을 위해 있었던 것 같다.

신성인 과장이 고안한 개선사항은 크게 필터와 노즐 그리고 탭링 부분이다. 그간 필터와 노즐 사이의 맞춤 작업이 어려웠던 것을 이음새를 개선하고 탭링 또한 그 자재를 반으로 줄임으로써 작업 시간의 절약은 물론 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가지고 왔다. 이로써 기대되는 개선의 경제적 가치는 5,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목포 대불공단 견학을 마치고

1공장 생산관리 정재현 대리

지난 2010년 10월 23일 토요일, 선보하이텍, 현대 삼호 2공장 및 현대미포 대불공장을 방문하는 목포 생산현장 TOUR를 실시하였다. 선보 입사 이후 목포로 출장을 가는 것이 처음이라 설렘을 갖고 45인승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전 선보하이텍 목포공장을 방문했던 분들은 첫 느낌이 체계가 없고 현장의 기본 활동인 5S 활동이 지지부진하여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의 몸가짐도 흐트러짐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터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기대가 되었다.

5시간의 지루한 버스 안에서 먼저 도착한 곳은 현대 미포조선의 대불공장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은 블록을 생산하여 울산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였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공장의 첫 느낌이 여기가 블록을 생산하는 공장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리정돈이며 공장 청결 상태가 아주 최상이었다. 간단히 공장투어를 마치고 공장장님께서 현재는 공장직원들이 3정 5S가

습관화 되어 공장 내 상태를 유지 개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선보하이텍 목포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TOUR를 실시하였는데 일전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변화를 하는 공장"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공장 내 SIDE 쪽 및 구석진 곳, 작업 전후의 정리 상태, 그리고 설비를 개선하여 작업자가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느낄 수 있어 "살아있는 공장"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현대 삼호 2공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도 마찬가지로 이 넓은 공장에서 블록을 생산하면서도 공장이 이렇게 '깨끗해 질 수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공장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TOUR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공장의 개선활동들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꼈고, 5S의 마지막 단계인 습관화의 중요성도 몸과 눈으로 느끼게 해주는 TOUR였다.



아이디어 공모

IDEA

조선기자재 관련으로 개발 욕구(?)가 지나치게 많으신 분, 내가 생각해도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남한테 얘기를 못하시는 분, 이런 분들께는 연락 주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바로 문 앞까지 찾아가겠습니다. "글로 쓰지 말고 말로 하십시오" 글 쓰면 귀찮습니다. 욕구(?) 제공 또는 아이디어 제공자 분께는 소정의 참가료 및 응분의 댓가를 지불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당신의 미소는 선보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선보의 미래입니다"

개발팀 장호길 (260-5511,010-7421-3454)

Life 추천여행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을속도 끄트머리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넓게 펼쳐진 억새숲과 철새 서식지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롭다. 도심 속의 숨겨진 낙원이다. 이곳에 바로 낙동강 에코센터가 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낙동강하구의 생태에 대한 자료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학생은 물론 시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연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류와 습지생태를 연구·조사하는 전시·학습·연구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산하의 사업소이다.

사업소라는 딱딱한 명칭과는 달리 이곳은 곳곳에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묻어

있다. 들어서는 입구부터 도로 위에는 철새들이 그려져 있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전시실로 올라가는 곳곳에 생태단지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의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실에는 낙동강 주변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설명과 낙동강 하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 먹이망과 철새이야기, 그리고 체험학습 공간과 탐조 전망대 등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지를 향해 트인 창문으로 보이는 수많은 종류의 철새이다. 억새풀 사이로 날아다니는 철새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젖어들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경우는 무료로 이용가능한 망원경을 통해 철새들을 보다 더 자세히 관찰할 수도 있다. 특히 해가 저물어갈 쯤에 간다면 보다 더 멋진 풍경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실은 무료로 이용가능하고 영상실과 실내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5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관람이 가능하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이 가을 아름다운 풍경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멀리 떠날 것 없이 가까운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그 여유를 만끽해보자.



Life 좋은 글



체인이 없는 페달식 전기 자전거가 등장했다. 만도는 자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의 상상력 | 자전거 편

체인 없는 페달식 전기자전거'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자전거 박람회'에 처음 공개했다. 이 자전거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전기자전거는 기존의 기계식 체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페달을 밟으면 전기로 구동되는 일렉트릭 체인(Electric Chain) 방식과 접이식 카본(탄소)

프레임을 적용해 중량을 17kg으로 줄였다. 가정에서 3시간 충전할 경우 4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만도는 또 자전거와 연동된 스마트폰을 통해 주행 거리·시간·속도와 이동 경로, 칼로리 소모량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만도 전기자전거는 이밖에도 부채꼴 형태로 접히는 설계를 통하여 간편한 조작으

로 한번에 접히는 폴딩 방식을 적용, 자전거의 부피를 최소화시켜 자동차 트렁크 내에 쉽게 적재가 가능하다. 또한, 고정 스텐드를 활용할 경우 실내에서 헬스 사이클로도 활용하여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 운동의 강도를 3단계로 조정하는 등 운동속도와 거리, 칼로리 소모량 등의 측정도 가능하다.

Inside SUNBO 우수 협력사 탐방



오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성진화이바”

운영해 오면서 한 가족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영면이나 사내 복지 면에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선보와의 오랜 인연을 이야기 했다.

또한 회사의 확장이전에 있어서도 선보와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저 없이 지금의 이 곳을 선택했다는 윤 대표는 “선보는 늘 배울 것이 많다”며 “특히 최금식 사장님께서 현장을 우선적으로 둘러보고 공정 파악과 현장직원을 격려하는 점이나 사원들과 터울 없이 어울리는 모습 등을 보고 배우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성진화이바가 지금의 위치까지 꾸준히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같은 분위기가 무엇보다 크다. “경제 불황에도 사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회사를 위해 힘써주기에 별 탈 없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며 사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윤 대표의 얼굴은 시종일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가는 선보와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하나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성진화이바의 아무진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성진화이바는 조선 보온 단열재 전문 회사로서 1998년에 창립된 직후부터 우리 회사와 함께 해오고 있다. 어느덧 11여 년이라는 특별한 인연은

이제 우리 선보가족과 펄라야 펄 수 없는 깊은 인연의 끈을 만들었다.

윤현부 대표 이사는 “선보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상생협력을 통해 회사를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신제품 개발팀



‘화’는 듣는 이들이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여기서 ‘신화’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시작하는 신제품 개발이지만,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결과는 “1승 9무 90패”라고 한다. 100개의 신제품 중 소위 ‘대박’이 나는 신제품은 하나이고, 9개는 겨우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90개는 실패한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어려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우리 신제품 개발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서원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어 늘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 위해 힘쓴다. 신제품 개발팀은 2009년 7월1일부터 활성화되어 본격적으로 기술개발 업무를 시작하여 2년 동안 다양한 국책사업 진행은 물론 모기업과의 구매조건부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짧게는 6개월부터 1년 전에 미리 사업들을 준비하여 고객이 구매를 요구했을 때 지체 없이 제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기에 그 규모 또한 몇 십억대로 향후 2~3년 뒤의 수주까지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 이 팀의 최재호 과장은 “고객의 믿음에 한 발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고객의 믿음에 한 발 앞서 우리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의

지를 드러냈다.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하거나 신제품 개발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부서원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된다”며 부서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팀이 잘 합심하여 향후 조선 물량의 수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터주는 부서 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 마침내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는 중소기업의 ‘성공신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빛나는 얼굴



신성훈 주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칭찬받게 되어 기쁘고 이번의 칭찬이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선보에서 근무한지는 5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배판 소속이었으나 이후에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 지금은 전장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사실 전장팀은 주로 혼자 작업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동떨어져 일하다보니 처음에는 소외된 느낌도 들고 하여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잘 챙겨주시고 일도 점차 익숙해져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최종검사를 잘 통과해야 하기에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그 완성까지 늘 주의하고 신경 쓰고 있어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다대 1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모두 저의 손을 거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뿌듯하고 더 보람을 느끼게 되요.

Q 이 자리를 빌어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늘 저를 믿고 따라주는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27살에 결혼한 뒤로 집에서 아이 보고 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늘 마음만은 더 잘해 줘야겠다 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여행도 못 가고 많이 소홀해진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컸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남편인 남편이 아니라 늘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편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늘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Q 다음 칭찬릴레이 주인공을 추천한다면?

부원들도 잘 챙겨주시고 늘 웃는 모습으로 책임감있게 맡은 일을 해내시는 배판팀의 장세열 팀장님을 다음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Q 이번호 선보가족 칭찬릴레이 주자로 뽑히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아 당황스럽기도 하고 쑥스럽네요. 현장에서 더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생일

다대공장

- 해임플랜트 장두생(11/19)
- 영업1팀 이황우(음9/27), 문해기(음9/27)
- 설계3팀 문종현(음10/23)
- 물류 류승진(음10/22)
- 중앙기전 정영희(음10/2)
- 1공장 장호길(11/15), 정재현(11/25), 박황수(11/16), 신유철(11/18), 김수환(11/28), 김지은(11/15)
- 2공장 김동주(음10/13), 유진근(11/9), 최철(11/6)
- 3공장 강민구(11/26), 백선우(11/2), 전물식(11/7), 김용호(11/25), 김남우(11/23)

구평공장

- 설계5팀 김형중(11/1), 이순복(11/20)
- 평창산업 하청수(11/20)
- 생산부 노재근(11/6), 양정수(11/7), 김광주(11/21), 이홍주(11/11), 김술(11/5), 성기욱(11/24), 노민석(11/22), 성민형(11/17), 차동현(11/5)

영도공장

- 품질보증 박한일(11/3)

입사기념일

다대공장

- 설계1팀 오세진(11/1), 유승균(11/1), 임기섭(11/13)
- 설계2팀 이정훈(11/1)
- 설계3팀 이철훈(11/1), 최순현(11/24)
- 설계4팀 곽봉제(11/21), 오성현(11/1), 신유철(11/1)
- 경영지원 황수영(11/1)
- 품질보증 이찬수(11/1)
- 경영지원 윤강재(11/4)
- 자재조달 김동관(11/2)
- 경영기획 이종필(11/1), 이기현(11/21)
- 기술영업 유우성(11/9)
- 고객지원 최원석(11/1), 배송용(11/1), 김지은(11/4), 서원수(11/25)

- 1공장 오진석(11/1), 오남기(11/27), 김형보(11/20)
- 2공장 신재석(11/23), 김충민(11/25), 진정현(11/16), 고숙현(11/18)
- 3공장 최병화(11/15), 이주원(11/5), 윤가현(11/1)

구평공장

- Q.A 김현우(11/9)
- 설계6팀 오창배(11/13), 윤태용(11/21), 홍성원(11/20)

영도공장

- 품질보증 박우근(11/10)
- 선각관리 김태경(11/13)

Run SUNBO Run **안정빈 과장의 “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